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만 수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자연현상에 따른 감성표현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2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남 유 리

자연현상에 따른 감성표현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이 만 수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남 유 리

인 준 서

남유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9년 11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2017-2019년의 대학원 작업을 바탕으로 2019년도 <DAILY MOOD> 석사 학위 청구전의 작품을 이론적으로 연구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 본인의 작품은 사람과 사람 사이, 자연에서 보고 느끼고, 나아가 그것을 화면에 그려내는 행위가 과연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서부터 시작한다.

과거의 미술은 한 시대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다면 지금의 현대 미술은 개개인의 특성과 감정표현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또한, 미술은 개인의 사상을 매체에 의해 시각적인 결과물로 정착시킨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생각을 시각적 이미지로 잘 드러내는 것이다. 이에 본인의 작품은 추상 미술의 영향을 받아 추상적 형태를 통한 내면의 감정을 표현한다.

추상미술의 개념은 인간의 감정을 표출하는 도구로써 내적 자아의 본질을 내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존재의 본질 문제를 시각 매체를 통해서 알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는 미술뿐만이 아니라 음악, 무용, 연극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이 된다. 앞선 방법들은 정신적인 요소가 현실적인 매체에 의해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감성적인 영역이다.

본인은 시사·사회적 문제를 제시하고 제안의 용도로 작품을 발표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작가의 감정이 작품에 이입되어 표현되었다는 것이다. 감정이입은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이라고 생각한다. 동양사상의 시각으로 보면 사의를 바탕으로 동양의 자연관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자연과 인간은 조화를 이룬다. 인간의 순수하고 깨끗한 정신을 통해서 자연, 즉 무위 상태에서만이 참되고 올바른 예술세계를 볼 수 있다.

날씨 변화 중 비가 내리는 날을 좋아하는 본인은 그 속에서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감정들이 뒤엉켜 많은 생각에 잠기곤 했다. 창문 밖 물방울이 떨어지고, 비바람이 부는 등 하강의 이미지가 유독 흥미롭게 느껴졌다. 이러한 자연현상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조형적 수단이 호분 물을 이용한 찍기와 떨어뜨리기이다. 이 작업을 통해 자연의 소리에 집중하게 되고 마음이 느긋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이렇듯 본인은 감정을 소재로 화면 안에 색의 구성과 운율적인 요소를 추상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회화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개인의 내면에서 나오는 직관적인 인상이나 심상을 가슴이 이끄는 대로 조형적 리듬과 균형, 대비를 통한 종이 위에 추상형태와 색을 입히는 과정에 대해 형식적 특징과 관련성을 서술하였다.

본인은 인간의 정신을 어떻게 화면에 담아 다양한 장르의 작업 속에서 감정표현이 주가 되는 예술이 현대미술에 왜 필요한지에 대해 고민을 하였다. 나아가 관람자로 하여금 그것을 느끼게 할 수 있고, 마음의 안식처로 삼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예술과 감성	3
2. 자연을 통한 감정과 표현	7
3. 개인작품분석	18
1) 감성 언어로서의 색채	18
2) 여백	22
3) 재료와 기법	28
III. 결론	33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1】	남유리, <“오늘, 당신의 색은 무엇인가요?”>, 가변설치, 2019	11
【작품2】	남유리, <2/ms>, 116.8x91cm, 장지에 채색, 2019	15
【작품3】	남유리, <3/ms>, 162.2x130.3cm, 장지에 채색, 2019	15
【작품4】	남유리, <Shower> 65.1x53cm, 장지에 채색, 2019	17
【작품5】	남유리, <Monsoon>, 65.1x53cm, 장지에 채색, 2019	17
【작품6】	남유리, <Moist>, 90.9x72.7cm, 장지에 채색, 2019	20
【작품7】	남유리, <Lighting>, 145.4X121.2cm, 장지에 채색, 2019	21
【작품8】	남유리, <Drop>, 116.8x91cm, 장지에 채색, 2019	24
【작품9】	남유리, <Drops of rain>, 116.8x91cm, 장지에 채색, 2019	25
【작품10】	남유리, <90%>, 145.5x112.1cm, 장지에 채색, 2019	26
【작품11】	남유리, <Light breeze>, 116.8x91cm, 장지에 채색, 2019	30
【작품12】	남유리, <야경002>, 15x15cm, 장지에 채색, 2018	31
【작품13】	남유리, <Fall>, 130.3x97cm, 장지에 채색, 2019	32

참 고 도 판

【도판1】 칸딘스키, 즉흥 19, 120cmx141.5cm, 캔버스에 유채, 1911 13

【도판2】 김환기, 아침의 메아리, 04-VIII-65, 177x126.5cm, 캔버스에 유채,
1965 14

I. 서 론

현대 사회에는 과거와 달리 삶이 풍족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예술의 자리도 넓어지고 있다. 그것이 꼭 미술이 아니더라도 음악, 무용, 영상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시각을 달리 보면 예술은 우리 삶에 가까이 있다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예술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자신만의 감성을 표출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작가는 개인의 주장을 종교적이거나 정치·사회적 이슈로 세상에 알리기 위해 예술로 승화시키는 방법이 있는가하면,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 표출을 회화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본인은 후자의 방법에 동조한다. 바로 자연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귀로 듣고, 코로 향을 맡는 찬찬하고 섬세한 감각들을 회화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리 정해져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은 순간적인 직관에 의해서 감수성을 끄집어 내고자한다. 본인은 비구상적인 표현을 추구하게 되었고, 이는 자연 속에서 객관적인 서술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리는 것이 어떠한 대상을 묘사하기보다는 추상적 형태가 감각을 표현한다는 것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생각은 동양적 정신을 바탕으로 동양화에 대한 자연과 인간의 합일체와 서양에서의 감정분야에서 많은 실험을 요구한 칸딘스키의 추상표현주의와 관련성이 깊다고 본다. 이에 본인은 추상적 개념과 현상에 대해 서술하고, 이러한 추상성이 감정적인 표출로 인해 회화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또한, 각 작품에는 본인이 직접 겪은 일상의 큰일부터 아주 사소한 일까지

의 이야기가 내재되어 있다. 작품의 이미지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보이지 않지만 색채나 형태표현에 그때의 감정이 녹아있다. 색채는 지극히 당시의 즉흥적이고 직관적인 색 사용을 추구한다. 너무 계획적인 색의 사용은 감정 상태가 인위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색은 밝은 느낌이지만 차분함과 어렴풋한 느낌을 내기 위해 호분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호분은 흰색이라는 색채의 의미도 있지만, 작품 전체의 밑바탕이 되는 기초 작업을 함으로써 본인에게 있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재료이자 과정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1장에서 감정에 대한 추상적 표현이 예술로서 어떻게 보이는지 전개하고 2장은 동양 추상미학의 사의성과 동양철학의 유, 불, 도에 대해 서술하고, 자연 속에서의 감정표출에 대한 추상작가의 작업을 본인 작업과 비교,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 3장에서는 본인의 작품분석과 함께 색채와 재료, 기법에 대한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본고는 개인의 상상력과 감수성을 통해 자유로운 형태의 작업 과정을 전개하고, 화면 안에서의 색채와 행위가 만나 어떻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열린 다양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본 론

1. 예술과 감정

요즘처럼 바쁘게 살아가는 시대에 현대인들은 자신의 마음을 돌보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유명인이나 주변 사람들만 바라봐도 느껴진다. 따라서 요즘 감성을 주제로 한 전시회나 취미활동이 유행하고 있다. 숨 가쁜 일상을 제쳐두고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의 감정을 생각해보고 예술과 접목시켜 풀어나가는 목적이다. 마찬가지로 본인도 미술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자유로운 방식의 작업으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본인은 마음을 어떻게 하면 화면에 잘 표현하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가지며 작업을 해왔다.

모든 만물의 예술세계는 추상적이면서 각 분야마다 통하는 면이 있다. 예를 들면 무용가는 표정과 몸짓으로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작곡가는 악기나 음악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야기나 감정을 표현하며, 화가는 어떠한 대상을 재현함으로써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 이 모든 것은 누군가에게 나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욕구와 행복하고 싶은 의지를 갖고 있다. 따라서 예술은 곧 마음을 기쁘게 하는 형식을 창조하려는 어떤 시도이다.¹⁾

대체로 인간은 예술에서의 미감을 느낀다. 『예술의 의미』 저자 허버트 리드는 말한다.

미감의 흐름은 다음과 같은 세 단계 여정을 거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색채·소리·몸짓 같은 물질적 성질, 그리고 좀 더 복잡하고 모호한 신체적 반

1) 허버트 리드, 임산 역 『예술의 의미』, 에코리브르, 2006, p.17

응에 대한 단순한 지각이 이루어진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형태와 패턴에 대한 지각의 배치가 이루어진다. 심미적 감각은 이 두 과정으로 종결된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지각이 이전의 정서나 감정 상태에 반응하여 배치된 후에는 다음 세 번째 단계가 필요하다. 바로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우리의 정서나 감정이 표현된다.²⁾

여기서 ‘예술은 표현이다.’라는 말에 모든 예술가는 동의할 것이다. 예술은 한없이 어렵고 주관적이지만, 정답이 없으며 마음이 가는 대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대신 표현의 결과물을 바라보는 시각은 개인마다 다르다.

본인 작업의 예술적 표현은 추상미술에 조금 더 가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누구나 알다시피 추상미술은 뚜렷하고 확고한 조형이나 형태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답을 알 수 없으며, 관람자로 하여금 다양한 결말을 요구한다. 본인은 추상의 표현 중 자신만의 감성을 본인만의 조형적인 언어예술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상미술에 끌렸고, 정답이 없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

추상미술은 구상미술에 상반되는 개념으로 인간의 관념이나 정신을 구체적 형태가 아닌 선, 색, 형상 등의 요소로 재현하는 예술을 뜻한다. 이에 추상미술은 인간의 감정을 나타내는 예술이다. 본인 작업에서는 사실적인 이미지보다 다양한 색감들이 나오는데 이는 곧 본인의 마음을 색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적이거나 묘사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대상의 특징을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상징적인 기호를 그리는 것이다.

본인의 경험에 따른 예로, 프랑스 니스지역의 ‘바다’를 소재로 작업한다면 그 날의 날씨와 기분을 떠올린다. 우선, 청명하고 맑은 에메랄드빛의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알록달록한 수영복을 입은 사람들과 시원한 파도소

2) 허버트 리드, 임산 역 『예술의 의미』, 에코리브르, 2006, p.24-25

리 등이 생각이 난다. 하지만 당시의 본인은 좋은 날씨와는 대조적으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고민과 심란한 심정으로 마음이 복잡했다. 작업할 때는 감정에 중점을 두고 배경보다는 여러 가지의 색들의 혼합과 화면 가득 메운 조각들로 감성을 표현했다. 이처럼 감정을 통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들을 의도적으로 좀 더 드러나게 표현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사실적으로 그리기 보다는 스스로 생각했을 때 부각시키고 싶거나 중요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과감히 생략하는 것이 추상으로 가는 첫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추상적 표현은 처음부터 아무런 대상이나 자연의 어떤 것을 나타내려는 의도 없이 순수하게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내적 필연성에 따른 것이며, 그것을 나타내기에 가장 알맞은 형태와 색채로 표현한 것이다.³⁾ 그리고 추상미술은 재현적인 미술보다 훨씬 더 실질적인 대면, 즉 사물 자체에 대한 감각을 요구한다. 추상미술의 효과는 단순하건, 복잡하건, 혹은 감각적이건 개념적이건 간에, 형태와 색채의 표현, 시각적인 패턴과 리듬, 형태, 모양 그리고 질감 등에 의미의 가능성을 부여하는 관람자의 존재에 달려있다. 다시 말해 의미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현실이 감각을 통해 관람자의 상상력에 영향을 줌으로써 창출된다.⁴⁾

여기서 관람자의 마음대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반응하는 모습은 다양하다. 예를 들면, 작품 앞에서 몇 분 동안 서서 감상을 할 수 있고, 바로 감탄사가 나온다던지, 더한 경우는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관객의 마음에 무언가가 다가와 움직이게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다. 독일의 심리학자 T.립스는 ‘감정이입(感情移入)’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립스의 영어 ‘감정이입(Einfühlung)’이라는 용어는 ‘공감’의 유사어로서 영어는 ‘Empathy’이다. ‘공감’이 무엇을 함께 느끼는 것이라면, ‘감정이입’은 무엇 안으로 들어가서 느끼는 것이다.⁵⁾ 이 과정은 작업하는 작가에게도 포함된다. 표현하기에 앞서

3) 홍성혜, 「감성으로서의 자연이미지 연구」, 성신여대 석사논문, 2002, p.6

4) 펠 구덩, 정무정 역 『추상미술』, 열화당, 2003, p.10

감정이입을 통해 내면의 상태를 진실하고 솔직한 자세로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예술가의 감수성이 관람자의 감성에도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본인은 밝은 면 뒤에 생각이 많고 예민한 성격이기 때문에 일상에서도 이성적인 면은 매우 떨어지고 감성적인 태도로 인해 상처받은 일들도 많았다. 남의 이야기를 본인의 일처럼 느끼고, 깊고 오래 생각하는 성향으로 이러한 감정들이 쌓이다보니 작품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것이다. 그러면서 작업하는 동안에는 생각을 덜하게 되고 스스로를 치유했다.

감정이입을 통한 작품에서는 그림을 그리면서 작가 스스로 치유를 할 수 있다. 이것은 '개념'에 치중되어 있는 작품에 대한 비평도 섞여 있다. 본인 또한 작품이 전달하는 개념적인 내용보다는 작품 자체에 대한 자신의 예술론을 화면에 토해내는 것이 더 진실되고 큰 호소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예술에서의 추상적 표현은 광범위하며 각자가 추구하는 방식으로 어떠한 대상이나 의도하는 바를 순수한 내적 감성에 의해서 표출하는 행위이다. 거기에 인간의 정서와 감성을 경험에 의해 좀 더 솔직하고 직관적 사교로 창조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5) 허버트 리드, 임산 역 『예술의 의미』, 에코리브르, 2006, p.41

2. 자연을 통한 감정과 표현

많은 예술가들은 ‘자연’에 대해서 논하고 작업으로 옮긴다. 이것이 과연 자연의 가시적인 현상에 대한 재현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은 크게 ‘자연’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연의 외관을 묘사하고 풍경에 대한 재현에 초점을 맞추는 작가들도 있지만, 본인은 그 속에서 느끼는 관계적인 측면이나 감정적 상태에 따른 그 무언가를 예술작품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다.

인간은 모두 자연 속에서 살아간다. 이것은 바다나 산속에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닌 자연 안에서의 마주할 수 있는 따뜻한 햇살, 찬 공기, 서늘한 바람, 분위기 등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각자 처해진 상황, 환경에 따라 느끼는 것은 모두 다 다를 것이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누군가는 슬프게, 또 다른 누군가는 행복하게 느낄 수 있다. 심리적으로 사람은 자기 내면에 있는 감정을 밖으로 표출해내려는 충동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출은 내면에 축적된 것을 배출하려는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표출의 내용은 인간 내부의 심리적인 내용의 감정과 사고뿐 아니라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는 것도 표현된다.⁶⁾

이것을 동양적 추상 미학으로 보았을 때 사의(寫意)⁷⁾라 한다. 문인화에서 사의(寫意)는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이며 정신적인 차원의 개념으로서 그리는 이의 인격, 성품 혹은 사상을 아우른다.⁸⁾ 사의적 표현은 문인들이 자연을 직접 보고 그리는 대신, 그 속에서 느낀 아름다운 내면세계를 표현한 것으로 조선시대 남종화에서부터 내려왔다. 기교와 멋을 부리는 북종화와는 반대로 필묵과 준법, 조형적 형식을 기초로 삼으며, 수묵화 속 시·서·화를

6) 조요한, 『예술철학』, 서울: 미술문화, 2003, p.39

7) 사의 | 寫意 | 동양화에서 화가의 생각이나 의중을 그림에 표현하는 화법(畫法) | 출처 | [네이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8) 윤난지, 『추상미술 읽기』, 미진사, 2010, p.162

회화의 요소로 갖춘 서정적이고 내면적인 사상을 중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김정희의 <세한도>는 귀양살이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의 내면을 그린 작품이다. 갈필과 건묵의 표현으로 집과 나무의 배치와 화면 옆에 김정희의 낙관과 글이 작품의 무게를 더 심어주며 안정적으로 보이게 한다. 이것은 그림 자체의 조형성보다 글이 함께해 그의 처연한 심경이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더욱 감동을 준다.

문인화의 사상적 배경은 동양철학과 관련이 있다. 유가의 회화정신은 그림을 통해 인격을 수양하고 청빈한 생활과 맑은 마음가짐을 사상표현에 두었다.⁹⁾ 인(仁)과 더불어 후소(後素)정신 또한 본바탕이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회화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정신세계이며 화면 속의 형이상학적 세계인 것이다.¹⁰⁾ 이것은 작가는 소우주를 표현해야 한다는 것으로 자연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교의 선가 사상 선(禪)은 동양화에서 마음의 근본으로서 선화(禪畵)라는 예술양식이 나온다. 선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붓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사물의 형체가 아닌 대상의 본질에 더 꿰뚫어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선종사상은 사물의 외형이나 기교를 따르기 보다는 마음의 수양과 이를 통한 정신과 자연과의 일치를 추구하는¹¹⁾ 정신으로 동양회화의 발전에 기여했다.

도가에서의 동양회화는 무위(無爲)를 통해 인간과 자연은 하나라고 말한다. 노자(老子, BC 579? ~ BC 499?) 는 무위자연(無爲自然) 사상을 통해 인위적인 것보다 내면에 있는 인간 본연의 가치와 자유를 추구하여 자연과 우주를 일치시켜 자연 속에 숨어 있는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인위적인 모습이 아닌 자연적 현상에 의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¹²⁾ 장자(莊子, BC 369년 ~ BC 289년)의 예술론에서 인간의 정신적인 자유와 해방을 추구하면 아

9) 김선현, 『마음으로 동양화 읽기』, 이담, 2011, p.24

10) 임유선, 「회화 작품을 통해 본 자연의 서정적 표현 연구」, 전북대 석사논문, 2007, p.9

11) 김미화, 「여백의 미와 선(禪)사상의 관계성 연구」, 원광대 석사논문, 2016, p.9

12) 남부원, 「문인화의 주요 조형요소에 관한 연구」, 호남대 석사논문, 2017, p.11

름다움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이는 회화의 자율성의 정신적 가치가 있을 때 외관적인 아름다움을 인식함과 동시에 기본상의 고유한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¹³⁾ 여기서 예술에 대한 감정(感情)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장자는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고 그 안에서의 자유와 유희하는 생활은 곧 예술적인 정신이 된다는 것이다.

동양사상의 공통점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 즉 인간은 자연의 일부라는 점이다. 화가의 마음이 주객합일(主客合一)인 상태에서 만물과의 영적교류를 통한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 동양화가가 가지는 정신 중의 하나인 것이다. 쉽게 말하면 화가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투영시켜 대신 느끼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다. 즉 동양예술은 인간의 본연의 모습에 집중하고 내면의 정신성을 중요시했다. 이성적이고 사실적인 표현을 먼저 중요시했던 서양 추상과는 달리 본래 동양화는 자연의 본질을 담으려 했기 때문에 이미 그 자체가 추상성을 띄고 있다. 따라서 한국 회화의 예술은 자연에서부터 얻은 인간의 정신을 내면세계에 이입시키며 내면성에 더 초점을 맞춘 회화를 표현하고자 했다.

본인은 햇살의 따스함과 솔솔 부는 바람을 느끼며 수업을 가고,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를 통해 우산을 준비하고, 습하고 축축한 집안에 보일러를 트는 등 매일매일 사소하고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간다. 본인이 작업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오직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바람과 소리, 공기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볼 수 없지만, 피부로 느끼며 마음으로 전해져 인간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심상적인 것이 오히려 작품에 드러내기에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생각한다.

13) 김선현, 『마음으로 동양화 읽기』, 이담, 2011, p.29

대부분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기분이 좌우되는 경우도 많다. 이에 본인도 마찬가지이다. 예민하고 감수성이 높은 성향으로 기분의 폭이 매우 크다. 기분이 좋지 않다가도 노래를 들으며 커피 한잔 마시면 다시 좋아지는 현상을 자주 느끼고, 창밖의 풍경으로 인해 과거 기억을 소환하여 잠시 추억에 잠기기도 하고 명을 때리는 일도 때번 있는 일이다. 본인은 비가 내리는 날씨에 조금 더 감수성이 풍부해짐을 느꼈다. 그림을 그릴 때마다 유독 비가 자주 내렸다. 비가 내리는 소리, 격하게 내리는 빗줄기, 습한 온도, 우중충한 회색빛의 하늘을 보며 순간적인 직관과 인상에 대해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기도 했다. 이것은 그 당시의 내적 감정을 바로 표현하기가 힘들 때 빠른 시간 내에 남길 수있는 방법이다.

본인은 일상 속에서 익숙하게 스쳐 지나가는 날씨 현상과 자연이 어우러진 찰나 순간의 다양한 내면 속 감정을 자아낸다. 또한, 시시각각 변화하는 날씨에 대해서 미묘하게 받아들이고 기억한다. 매일 마주하는 빛이나 바람, 공기 등은 마음 상태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내면을 색으로 표현한다.

작업 후 집으로 돌아가는 날에 비가 매우 쏟아져 내렸다. 우산에 빗물이 튕겨져나는 소리와 바람과 함께 흔들리는 나뭇잎의 움직임들이 더 크게 들렸다. 무언가 짓누르는듯한 감정이 들었던 때이다. 축축하고 약간 싸늘한 느낌을 회색빛의 작업으로 표현했다. 이러한 자연에서 느낀 감정표현은 평범하며 언제든지 작업으로 나타낼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한다.

본인의 작업에서도 다양한 색감과 추상 형상이 나온다. 자연 관계 속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본인은 조형적 측면, 그리고 그 행위 자체에 의미가 있음을 담아 종합적 행위로서 다가간 것이다.

본인은 색을 다양하게 사용하지만, 색 하나하나의 의미가 담겨 계산적으로 색칠하지 않는다. 당시의 신체적인 반응에 따라 마음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인다. 정서나 감정의 즉흥적인 색들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색일

지라도 작품마다 의미와 내용은 다르다. 예를 들면, 푸른계열의 작업에서 【작품6】은 사촌동생의 이른 죽음에 대한 슬픔이 주된 감정이라면, 【작품 10】은 자연의 싱그러움과 푸릇푸릇한 산뜻한 느낌을 좀 더 강조된 작품이다.



【작품1】 “오늘, 당신의 색은 무엇인가요?”_ 가변설치_2019

【작품1】은 본인의 2019년 석사학위청구전시 중 한쪽에 ‘오늘, 당신의 색은 무엇인가요?’라는 주제로 사람들의 참여 유도형 프로젝트를 했었다. 개인의 감정을 앞서 그리다 보니 다른 이의 마음도 궁금했다. 그 결과 관객들의 반응은 좋았고, 각자의 감정을 색과 이미지를 이용해 상징적으로 잘 드러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러한 질문과 주제로 그날의 사람들의 감성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시간이었다. 이 프로젝트의 의도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기분에 대해서 가볍게 물어보는 것이다.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을 잊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 날의 날씨와 기온에 따라 사람들은 각자 상황에 따라 느껴지는 분위기는 달라질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기쁘고 에너지가 활기차다면, 다른 이에게는 이별에 대한 아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날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프로젝트로 본인은 잠시나마 스스로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것을 일반인에게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였다.

추상회화는 작가의 내적 감정표현의 행위를 예술로써 승화시킨다. 대부분 인간은 심리적으로 내적자아에 대한 생각이나 마음을 표출하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다. 본인의 작업성향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표출의 행위는 충동적이거나 직관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다양한 이미지의 개입이 되는데, 우연적인 효과로 표현되거나 자극적인 색채감으로 집중시킬 수 있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본인은 인간의 심리적인 면에서 이성과 사고뿐만 아니라 즉각적이고 본능적인 사고에 더 집중하여, 회화에서 감정표현을 어떻게 풀어나가면 되는지에 대해 2명의 작가와 연관지어 생각해보았다.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1866-1944)는 추상미술의 선구자로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추상회화작가이다. 그의 뜨거운 추상은 비구상적인 형태로 작가의 감성과 직관에 의해서 주정적인 느낌이 강하며, 작가의 우발적인 감정이 많이 담겨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미술은 음악의 세계와 맞물려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작품 ‘즉흥’, ‘구성’, ‘인상’이라는 제목은 음악을 암시한다. 색과 형태가 ‘소리를 내고’ ‘진동을 한다.’¹⁴⁾고 했다. 【도판1】은 그의 내면세계를 무의식적인 흐름으로 작업한 결과이다. 이 작업은 결혼행진곡으로 유명한 ‘로엔그린’ 곡을 듣고 그린 그림이다. 오르간의 소리와 경건한 분위기가 그림에 더 관찰되는 것 같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그는 외적자연과 내적자연에서 얻은 ‘인상’과 ‘즉흥’에 대해 말했다. 외적 자연은 소묘적,

14) 하요 뒤히팅, 김보라(역), 『바실리 칸딘스키』, 마로니에북스, 2007, p.30



【도판1】 바실리칸딘스키, 즉흥 19, 120cmx141.5cm, 캔버스에 유채, 1911

색채적인 형식으로 표현하며 ‘외적 자연’에서 얻은 직접적인 인상으로서, 이러한 그림을 ‘인상(Impression)’이라고 불렀다. 내면적 성격의 과정을 주로 무의식적으로 표현하거나, 대부분 갑작스럽게 표현하는 것을 ‘내면적 자연’에서 생겨난 인상을 ‘즉흥(Improvisation)’이라고 말했다.¹⁵⁾ 이 모든 것의 관련성은 계산된 것이 아

닌 작가 마음에 의한 회화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회화가 음악과 마찬가지로 ‘자연현상들에 대한 복제’에 의지하지 않고 미술가의 ‘내면적인 삶’, 즉, 가장 심오한 직관과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고 믿었다.¹⁶⁾ 이것은 내적 필연성¹⁷⁾에 따른 정신성을 추상적인 이미지와 색으로 가시화하는 것을 중시했다고 볼 수 있다.

본인은 작업이 시작되면 음악을 항상 틀어놓는다. 좀 더 감정적으로 변하고 감수성이 풍부해짐을 느낀다. 이것은 소리에 민감하다는 것을 뜻하며,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체험에 대한 세계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영혼도 표현하고 싶은 연구자의 욕구도 담겨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음악의 선율과 리듬을 직접적으로 회화에 연결지은 칸딘스키와는 본인과는 차이가 있지만, 그의 정신성의 의미를 추상적 형태로 그린다는 점에서는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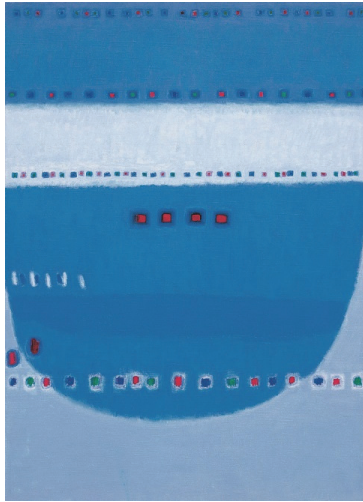
김환기작가(1913-1974)는 우리나라 대표 추상작가이다. 그는 감정의 즉각

15) w.칸딘스키(1912),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권영필(역), 열화당미술책방, 1979, p.141

16) 델 구덩, 정무정 역, 『추상미술』, 열화당, 2003, p.21

17) 내적 필연성 | 예술의 모든 외적인 표현수단이나 형식을 관통하는 예술가의 내적인 울림을 가리키는 말 | 출처 | w.칸딘스키(1912),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적 표현으로 서정적 추상화를 시도했다. 구체적인 대상 대신에 시간적인 요소와 점·선·면으로 이루어진 화면구성, 색채를 조형적인 측면으로 보여준다.



【도판 2】 아침의 메아리, 04-VIII-65, 1965, 캔버스에 유채, 177x126.5cm

그는 한국적인 미를 자연적인 요소와 결합해 동양의 미로 굳히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 【도판2】을 보면 제목과 같이 새벽녘의 하늘을 연상케하고 청아한 색감과 메아리가 퍼져나가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아침이 밝아오는 상쾌함과 하늘 위의 별들이 떠오르는 자연적이고 서정적인 작품으로 보여진다. 그는 자연적인 요소에서의 모티브가 되어 형태의 단순화와 색채 리듬의 조형법칙에 큰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자신만의 조형세계를 구축해 나갔으며, 자신의 정서를 추상의 이미지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연구자의 작업 정서와 일치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본인의 작업은 점들이 모여 하나의 큰 면이 되는 기초적인 작업을 한다. 자연요소가 눈에 보이는 이미지들과 그 사이사이 붓의 터치가 종이에 계속 해서 쌓이고 중첩이 되어가면서 자연스러운 색이 나오는 것이다. 본인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한 색감과 조형적 리듬감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김환기 작가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다.

본인은 감성에 대한 표현을 하는 작가들의 작업을 통해서 시각적인 이미지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확고한 이론과 예술성이 존재해야한다는 것에 크게 동의를 하는 바이다. 그에 따른 내적감정 표출은 행위 그 자체와 색으로서 그 의미를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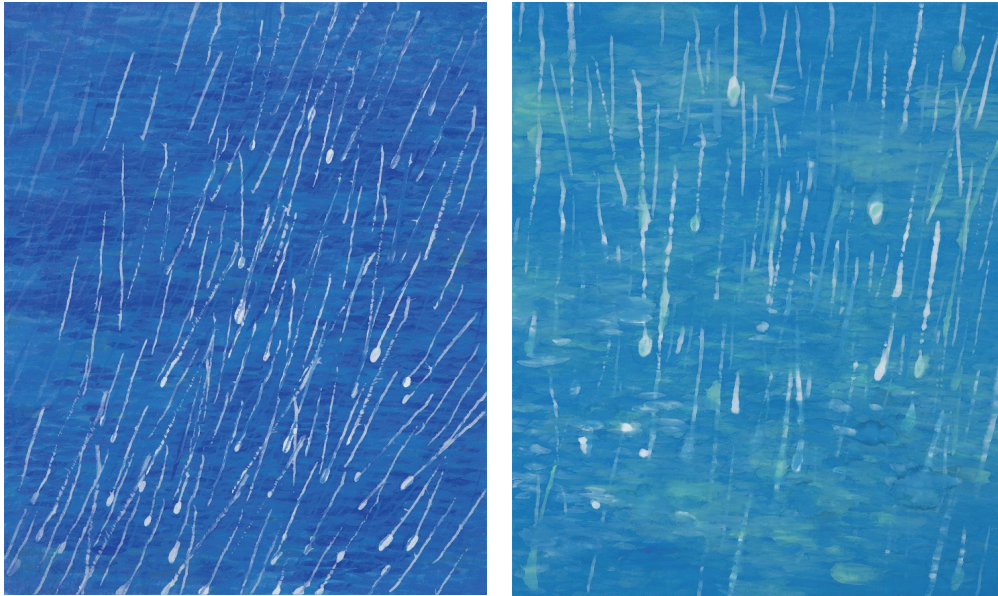
【작품2】 2/ms_116.8x91cm_장지에 채색_2019



【작품3】 3/ms_162.2x130.3cm_장지에 채색_2019

【작품2】, 【작품3】은 바닷바람을 형상화한 작업이다. 바닷가 바람의 리듬과 순간적인 바닷가의 풍경을 내면의 색으로 표현했다. 당시의 본인은 연애에 대한 감정으로 인해 힘들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세상 모든 것에 에너지가 떨어지고 크게 기쁜 일이 없었다. 그런 일들로 가까운 바다에 가서 마음을 달랬었다. 평소에 자주 바다에 가고 싶어 했지만, 그날의 마음 상태로는 달갑지 않았다. 추운 날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는 꽤나 쌀쌀한 느낌이었으며 바다도 차게만 느껴졌기에 작업을 할 때도 내적상태에 따라 색을 선택했다. 평소 즐겨 쓰던 색과는 다르게 약간 어두운 색들로 이루어져 있고, 올-오버-페인팅 (all-over-painting)¹⁸⁾으로 갑갑하고 답답한 심정을 표현했다. 가슴 속 뻐뻐하게 쌓여있는 그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어, 오랜 시간 여러 가지의 색감으로 쌓고 또 쌓아 중첩의 효과를 나타냈다.

18) 올-오버-페인팅 | all-over-painting | 중심이 되는 구도 없이 화면을 균질하게 표현하는 회화. 화면 전체를 같은 방법 및 강도로 칠하고, 테두리까지 모두 그림으로 채운다. | 출처 | [네이버 우리말샘]



원 【작품4】 Shower_65.1x53cm_장지에 채색_2019

오 【작품5】 Monsoon_65.1x53cm_장지에 채색_2019

【작품4】, 【작품5】는 소나기와 장맛비가 내리는 형상을 직선과 색으로 표현한 작업이다.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하강의 이미지와 비는 눈에는 보이지만 손으로는 잡을 수 없는 형태가 흥미로운 소재였다. 또한, 비 내리는 날에 특유의 냄새와 높은 습도가 본인에게는 작업 요소로서 생각하게 되었다. 푸른 계열의 색상은 여름 날씨와 잘 맞아떨어졌고, 축축하고 습기가 찬 기후적인 요소를 풀어내기에 적합했다. 4~5개의 푸른 계열을 고르게 사용하여 붓 터치 중첩 효과로 종이에 물감이 스며들고 서로의 색들이 어우러지기를 반복하면서 동양화 특유의 느낌인 회화적인 색감을 나타내었다. 이 행위는 칸딘스키가 말한 과정으로서의 내적 필연성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개인작품분석

1) 감성언어로서의 색채

문득 보게 된 색은 감각적인 체험이나 감정적인 추억 같은, 최근에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던 사실들을 문득 기억의 어둠 속에서 튀어나오게 해준다.¹⁹⁾ 그 안에서 본인도 기분은 좋지 않거나 우울할 때 유독 알록달록하고 밝은 색깔을 가진 꽃이나 물건 등이 모여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누그러지며 펜스레 좋은 호르몬이 뇌에 분비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신기하게도 색은 음악처럼 진동과 파장을 가지고 있다. 색의 진동을 음의 주파수로 바꾸면 그림을 음악으로 들을 수 있고 음악을 그림으로 볼 수도 있다.²⁰⁾는 것을 사이보그 아티스트 ‘닐 하비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다. 또한, 색을 음식과 건강을 연결하여 ‘컬러푸드’라고 하는데, 녹색과 연결하여 시금치나 썩을 먹으면 간에 좋고, 흰색은 무나 배를 먹으면 폐에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처럼 색은 빛이 존재하는 한 우리 주변에 항상 있으며 건강뿐만 아니라 미적으로 꾸미기는 등 색의 활용도가 대단히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본인은 색에 대한 관심이 높고 탐구하는 것에 집중한다. 즉 화면 안에 색의 구성과 운율적인 요소를 추상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작업을 목적으로 한다.

색은 조형언어로 현대 미술에서는 구체적 형상으로부터 해방된 언어로, 정신적인 내면을 표출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²¹⁾ 색채는 인간의 감정에 직접 호소하며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는데, 인간의 감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가장 표현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²²⁾

19) 스에나가 타미오, 『색채 기억』, 강죽형 역, 도서출판국제, 2003, p.19

20) 김정해, 『색깔의 힘』, 토네이도, 2016, p.20

21) 이상희, 「색면의 조형성과 정신성에 관한 연구」, 2011, 홍익대 석사논문 p.21

22) Otto G. Octivirk, 『미술의 언어』, 박재은, 황진영 공역, 서울: 아트나우, 2004, p.58

본인도 기분에 따라 색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다. 이 뜻은 색채로 인해 정서가 쉽게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개인적인 일로 기분이 좋지 않았을 때 혼자 공원을 갔다. 그곳에 있는形形色색의 꽃들과 조각상들을 보고 갑자기 아무 생각이 나지 않으면서 기분이 나아졌다. 다양한 색의 향연들이 단순하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독여주고 위로해주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본인은 색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작업에 색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다.

칸딘스키는 “우리는 색의 깊고 예민한 복잡성의 문제를 취급할 필요가 없고, 단순한 색의 기본적인 표현을 우선 고려해야한다.”²³⁾고 하면서 색의 밝고 어둠, 따뜻함과 차가움을 설명한다. 이에 본인의 작업에도 일맥상통한다. 그는 ‘푸른색’을 ‘하늘색’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림의 감정을 가라앉히는 색이라고 했다. 또한, 초록은 자연이 일 년 중에 질풍노도의 계절인 봄을 견디어내고 자기만족적인 평온 속에 침잠해 있는 여름의 지배적인 색²⁴⁾이라고 말했다. 본인에게도 색채에 따른 감정의 변화가 있으면서 작품마다 같은 색일지라도 내용은 저마다 다른 의미를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밝은 작품이라도 가라앉는 감정으로 그렸을 수도 있고, 희망적인 마음을 담아 가능성을 염원한 작품일 수 있다.

<2018 작가노트>

나에게 있어 색은 이성의 통로를 거치지 않고, 감정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요소이다. 이것은 나의 민감하고 예민한 감수성이 담겨있는 것이다.

23) w. 칸딘스키(1912),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권영필(역), 열화당미술책방, 1979, p.40

24) 위의 책, p.91



【작품6】 Moist_90.9x72.7cm_장지에 채색_2019

【작품6】은 본인의 외사촌동생의 죽음에 대한 그림이다. 음주 사고로 동생은 7년간 식물인간 상태로 병상에 누워지내다 2019년 2월에 하늘나라로 먼저 떠났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동생을 보면서 한창 밖에 나가 친구들과 운동하고, 멋도 부릴 나이의 아이가 아무 말도 못하고 눈도 뜨지 못한 채 가만히 누워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비통하고 슬펐다. 그렇게 상을 치르고 올해 여름에는 유독 비가 많이 왔다. 본인은 그때의 감정을 담아 하늘색과 초록색을 나눠 칠하여 하늘에 간 아이와 들판 위로 떨어지는 비의 모습을 색으로 표현했다. 굉장한 슬픔을 담은 작업으로 하늘에서 편히 쉬었으면 하는 본인의 바람이 담겨있다.



【작품7】 Lighting_145.4X121.2cm_장지에 채색_2019

일반적인 검정색은 죽음과 어둠을 상징하는 무거운 의미로 사용된다. 칸딘스키는 흰색과 검정을 대립시키면서 ‘무한한 가능성’과 ‘마지막 종결’에 대해 설명했다. 이 이론에 대한 본인은 동의한 바이지만 최근에는 검정에 대한 의미가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세련된 긍정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본인 작품에는 대부분 부드러운 저녁 분위기와 알록달록한 네온사인이 비춰 서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밤풍경에 대해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주로 블랙을 선택했다.

【작품7】은 검정 바탕에 여러 가지의 색들이 마구 빗발치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작업을 하는 동안에 천둥·번개가 치며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렸다. 번쩍거리는 빛과 가로등, 차들의 불빛이 마구 섞여 어둠 속에서 힙합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들렸다. 개인적으로 힙합이나 락 장르는 즐겨듣지 않지

만 그러한 정신없는 상태와 번쩍거림을 표현하고자 짙짙한 밤하늘을 검정으로 칠 한 후 비의 색을 다양한 색조로 나타내었다. 검정과 밝은 명도의 색 상대립으로 충들을 표현하고자 했으며, 무거움 위에 가벼운 색들의 향연을 덧붙였다.

2) 여백

평면회화에서 쉽게 간과할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화면 구성력이다. 작고 사소한 이미지들의 크기나 위치에 따라 작업의 느낌은 달라진다. 본인 작업 중 일부는 여백이 보인다. 시각을 다르게 보면 본인의 성향상 화면을 꽉 채워야 하는 성격이지만, 화면구성에 있어 계획적으로 여백을 두는 시도를 하게 된다.

동양사상에는 ‘여백의 미’라는 말이 있다. 여백은 동양화에만 있는 독특한 조형구성이다. 이것은 무(無)의 의미를 뜻한다. 없다는 뜻이지만 실제로 없는 것이 아닌 유(有)의 상대 개념이다. 여기서 무의 성격이 그림으로 표현된 것이 여백이다.²⁵⁾ 재현의 대상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의 배경이 되는 서양회화에서의 여백과는 다른 점이다. 무(無)를 통한 동양의 마음을 나타내고 표현과 생략이 적절히 조화되어 그려진 부분과 생략된 부분의 합일체가 되는 동양미술세계를 추구하는²⁶⁾ 여백은 없음으로써 있음을 보여주는 심리적 공간²⁷⁾이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상상력을 발휘하게 한다. 그래서 누구나 개인의 생각으로 가득 채울 수 있으며 주관적인 속성을 가지게 된다. 여백은 말 그대로 비어 있지만, 보는 이의 마음에 따라서 무엇이 보이기도 하고 안보이기도 하는 사유의 세계이다.²⁸⁾

25) 김영길, 『조형은 골법(骨法)이다』, 기파랑, 2016, p.137

26) 김선현, 『마음으로 동양화 읽기』, 이담, 2011, p.43

27) 김영길, 『조형은 골법(骨法)이다』, 기파랑, 2016, p.138

28) 위의 책 p.139

‘나는 여러 화가의 화면 속에 보이는, 그저 빈 공간을 여백이라고는 느끼지 않는다. 거기에는 무언가 리얼리티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큰 북을 치면 소리가 주위 공간에 울려 퍼지게 된다. 큰 북을 포함한 이 바이브레이션의 공간을 여백이라 하고 싶다.’²⁹⁾

이우환 작가는 여백에 대해 쉽게 생각하지않고, 그린 곳과 그리지 않는 공간에 대한 차이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며, 서로가 자극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본인에게는 사실 여백의 의도성은 큰 시도였다. 항상 채워야하는 습관으로 비워야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어딘가 완성이 되지 않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본인이 여러 가지의 화면구성과 시도를 한 후 여백이란 것은 그 나름대로의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본인의 사의(寫意)성의 방식을 확장시켜나가는 방법이 되기도 했으며, 작업에 따른 감성표출에 대한 표현양식이고 그러한 정신성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29) 이우환, 『여백의 예술』, (주)현대문학, 2002, p.16



【작품8】 Drop_116.8x91cm_장지에 채색_2019

【작품8】은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하나의 큰 방울이 되는 과정을 본인만의 공기로 표현했다. 물방울은 인간의 슬픔을 의미한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다른 가족들을 위해 애써 마음을 숨기고 아닌척 하는 외삼촌과 외숙모의 심리를 본인의 눈과 마음을 통해서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다. 파랑색의 물방울이 흰 화면 중앙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방울만 집중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다. 또한, 흰 배경으로 인해 색이 더 두드러져 보인다. 실제로 배경을 가까이서 보면 흰배경에도 호분의 붓자국이 남아있다. 이 흰색의 여백은 칠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표현의 한 자국들이 남아있음을 더욱더 강화시킨다.



【작품9】 Drops of rain_116.8x91cm_장지에 채색_2019

【작품9】은 오른쪽으로 살짝 치우쳐진 분수 형태의 모습이다. 이것은 본인이 직접 차를 타고 이동 중에 잠깐 지역을 벗어나니 비가 떨어지는 현상을 보고 신기하면서도 화면에 담아내고 싶었다. 자연현상이 마치 이분법적으로 느껴졌던 순간이었다. 모든 수분들이 한곳에 모여서 확 떨어지는 것이 마치 분수대처럼 보였다. 두 지역의 극과 극인 지점을 나타내기 위해 왼쪽 여백을 좀 더 많이 두었다. 본인의 감수성이 확대될수록 화면의 여백에는 개인의 경험이 녹아 의미를 확장시킨다.



【작품10】 90%_145.5x112.1cm_장지에 채색_2019

【작품10】 2018년 3월에 개봉한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는 영화를 보고 난 후 느낌을 그린 것이다. 비가 오는 날에 죽은 수아(엄마)가 돌아온다는 내용으로 애절하고도 슬픈 영화이다. 이 영화를 보면 비가 많이 내린다. 영화의 큰 소재이기 때문이다. 영화의 마지막 내용은 비가 내리는 날 엄마는 다시 사라지게 된다. 수아를 붙잡기위해 우진(남편)과 지호(아들)은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막을 수 없음을 알고 웃으며 헤어진다. 마지막 장마는 너무 슬프지만, 가족이 마음을 가다듬고 정리하면서 이별을 맞이하는 장면이 굉장히 애절했다. 본인은 지호의 마음에 감정이입을 하면서 그린 작업이다. 헤어지기 싫지만 잠시동안 행복하고 재밌었던 엄마와의 추억을 생각하며 마음을 억누르는 감정이다. 나무와 풀잎 사이로 떨어지는 빗방울들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억지로 참지만 결국은 눈물을 흘리는 마음을 큰 물방울에 함축적으로 담았고, 가장자리의 여백에는 비가 새는 듯한 느낌을 표현했다. 배경에는 속도감이 나는 직선의 형태들이 화면에 난무하고 있다.

본인에게서 빗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등 싱그러운 자연만물에 대한 소리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하여금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여백을 의미한다. 완전히 비워둬야 아니라 그 위에 표현이 들어갔지만 언뜻언뜻 보이는 흰 배경은 본인이 채우지 않음에 대한 절제를 암시하기도한다.

3) 재료와 기법

현대미술이 발전하면서 많은 작가들은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지만, 본인은 동양재료로만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그 이유는 서양 물감에서는 나올 수 없는 분채의 깊은 색감과 발색이 있기 때문이다.

본인은 동양적이고 한국적인 미에 관심이 많으며, 동양재료만으로도 충분한 회화 느낌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단순히 이미지를 그리는 행위에만 멈추지 않고, 그리기 전의 준비과정 모두를 합하는 것도 하나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회화는 그저 그리는 행위나 화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기 전의 온갖 굳은 채비와 화면의 채색이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안료³⁰⁾를 만들어내고 또 모든 과정들을 함축적으로 포함한 것이다.

호분은 백색안료인 가루물감이다. 조개껍질이 오랜 시간동안 파괴되거나 분해되면서 만들어진 천연재료이다. 흰색을 띄고 있어 단순히 화이트로만 사용하기보다는 밀도를 높이기 위한 밀작업을 하기도 하고, 다른 색과 혼합하여 채도를 낮출 수도 있다.

본인에게 있어 호분은 하나의 재료일 뿐만 아니라 그림을 그리기 전의 하나의 마음수양을 할 수 있는 과정이 된다. 본인은 대학입학 후 채색화시간에 호분을 장지 위에 여러 번 깎 후 그 위에 채색을 해보는 수업이 있었다. 아교 반수 후 바로 채색을 했을 때는 종이 표면도 가볍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여러 번의 터치를 해야 밀도가 생겼다. 하지만 호분을 여러 번 칠한 후 배경작업을 하니 일단 표면의 무게감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졌고 밀도감도 빠르게 올라왔다. 당시에 호분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본인에게 호분은 단순히 작업의 재료와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30) 김민, 이상현, 『전통회화 재료 및 기법 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상품개발실, 2016, p.11

형상을 그리기 전 마음을 다잡는 명상의 시간이 된다. 또한, 흰색은 깨끗하고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아 하나의 출발을 상징하기도 한다.

모든 작업의 공통적인 기법은 색의 중첩도 있지만 호분을 이용한 찍기와 떨어뜨리기 기법이 들어가 있다. 이것은 조형적으로는 단순한 비의 형상을 표현하면서 촉촉한 촉감적인 느낌의 내면상태를 드러내기에 적합하였다.

자연으로부터 피부로 느껴지는 것을 그리고 싶은 본인은 장지 위에 작업을 한다. 마치 장지는 얇지만 단단함이 꼭 인간의 피부와 비슷하다고 느꼈고, 여러 가지 감정의 색과 기법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종이 위에 툭툭 그리는 것이 살갓으로 느껴지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생각에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찍기와 떨어뜨리는 본인이 화면 안에서 유일한 자유로운 붓 동작을 하며 예상하지 못한 결과물들로, 우연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다.

<2018 작가 노트>

나에게 흰 배경작업은 그림을 대하는 첫 번째 마음가짐이다. 그리고 호분의 불투명한 터치와 색점들의 겹은 기억의 시간을 불러일으키고 쌓아간다.



【작품11】 Light breeze_116.8x91cm_장지에 채색_2019

【작품11】은 데이트를 하던 중 바람과 비의 소리를 형상화한 작업이다. 은화한 날씨 속 따뜻한 바람에 이파리들이 살짝씩 흔들리고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나타냈다. 좋아하는 사람과 좋은 날씨에 거리를 걷는 것 자체만으로도 설레고 달콤했다. 따뜻하고 은은한 분위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다. 평붓의 끝을 최대한 모은 후 호분 물을 머금게 한 다음 종이 표면 위에 살며시 찍고 떨어뜨리는 과정으로 이루어져있다. 물이 닿아 있던 위에 색이 올라가면서 주변의 색감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약간씩 번지게 되는데, 의도하지 않는 번짐도 하나의 채색 자국으로 남기게 된다.



【작품12】 야경002_15x15cm_장지에 채색_2018

【작품12】는 송도 워터프린트가 배경이다. 아파트의 빛들이 호수가 물결에 비친 것을 표현한 작업이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마음이 괴롭던 날에 일과를 마치고 커피 한잔과 함께 천천히 걸으며 대화를 하고 한적한 분위기에 취했던 날이다. 밤의 고요한 분위기 속 울렁거리는 물빛들과 잔잔하게 넘실대는 모습이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것 같았다. 이러한 느낌을 형상화했다.

진한 호분을 만들어 큰 평붓에 묻혀 화면 전체에 천천히 올려둔 뒤 자국을 말려가면서 진행한 작품이다. 호분물이 고여 있어 말리고 다시 올리는 등 여러번의 중첩의 효과로 크기는 작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때 작업의 색감을 다운시키고 싶은 의도와 맞아떨어진다면 완성된 화면 위에 빠른 속도로 아교원액을 바르게 된다. 아교로 인해서 작업이 약간 탁해지면서 안착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작품13】 Fall_130.3x97cm_장지에 채색_2019

【작품13】은 19년도 작업 중 가장 채도가 높은 작업이다. 일기예보와는 다르게 비가 전혀 올 것 같지 않은 맑은 하늘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떨어지는 빗방울에 놀란 적이 있다. 갑작스러운 날씨와 뜨거운 햇살에 대한 뒤섞인 감정을 분홍과 노랑 톤을 사용하여 전반적인 분위기를 명쾌하게 했다. 화면의 하단 부분에 약간의 흐른 자국이 보이는데, 의도적인 방법보다는 물성을 이용해 자연스러운 번짐을 추구했다. 호수 위로 흐르는 물빛들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Ⅲ. 결 론

예술은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도 절대 없어질 수 없는 문화이며 마음의 양식이다. 나라마다 예술을 대하는 태도와 생각은 조금씩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사회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정신문화라고 할 수 있다.

본인은 예술을 대함에 있어 가장 솔직하고 순수한 표현은 자신만의 감정을 꾸밈없이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은 절대적인 정답이 없으며 본질을 추구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본인은 추상미술을 가까이하게 되었다.

추상미술은 언어를 초월하고 너무나도 감각적이지만 보는 이로 하여금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을 시각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통로이다. 논리적인 이해를 넘어 추상으로 뻗어가면서, 회화는 자아 세계의 무한함을 시각적으로 확인시키고,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압축적이고 기호적인 매체이다.

‘비’나 ‘바람’과 같은 기후적인 요소들이 담긴 작업은 날씨 자체를 표현한다기보다는 일상에서 내적감정에 따라 서로 다른 감각의 경험들 사이의 직접적인 교감을 인식하는 좀 더 깊은 구조적 미학을 위한 구성요소라는 생각이 깔려있다.³¹⁾ 여기서 관람객과 가깝게 소통하기 위해 더 넓은 확장된 영역으로 자신을 담아낸다.

본인은 ‘피부로 느끼는 것을 화면 위에 어떻게 이미지화 시킬까?’란 의문을 시작으로,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심상의 변화를 자신만의 조형언어로 형상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연구해왔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감각들은 당시의 즉각적이고 즉흥적인 색을 사용하여 겹의 반복과 색감을 더하는 작업으로 진행했다. 이러한 표현은 색채에 대한 감각을 통해 꾸밈없고 순수한 연구자의 감수성을 표현하려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물방울의 형태와 호분을 활

31) 멜 구덩, 정무정 역, 『추상미술』, 열화당, 2003, p.20

용한 흘리기는 몽글몽글함과 촉감적인 느낌을 표현함과 동시에 인간의 근본적인 감정만을 최대의 관심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자연과 감정을 소재로 한 작품은 현대작가나 옛 화가들에 의해서 다양한 형식으로 그려져 왔으나, 본인은 본인만의 개성이 담기고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재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왔다. 결과적으로 작업을 통한 내적 감정의 이미지를 표현함에 있어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었고, 절대적인 자연의 힘 속에서 살아가기를 반복하면서 화면 위에 형상과 색을 담아낼 때는 그 자체보다 이러한 색을 사용하게 된 개인의 경험과 삶을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연구를 통해 심상의 표현방식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볼 수 있었고, 조형적으로도 본인이 좀 더 두드러지게 추구하고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각각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인은 앞으로 끊임없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가며, 내면에 자리잡고 있는 기억을 바탕으로 회화 속에서의 감각과 조형성의 관계에 대해 다양한 매체로 계속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김민, 이상현, 『전통회화 재료 및 기법 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16
- 김선현, 『마음으로 동양화 읽기』, 이담, 2011
- 김영길, 『조형은 골법(骨法)이다』, 기파랑, 2016
- 김정해, 『색깔의 힘』, 토네이도, 2016
- 멜 구덩, 『추상미술』, 정무정 역, 열화당, 2003
- 스에나가 타미오, 『색채 기억』, 강죽형 역, 도서출판국제, 2003
- 이우환, 『여백의 예술』, (주)현대문학, 2002
- 윤난지, 『추상미술 읽기』, 미진사, 2010
- 조요한, 『예술철학』, 서울: 미술문화, 2003
- 허버트 리드, 『예술의 의미』, 임산 역, 에코리브르, 2006
- 하요 뤼히팅, 『바실리 칸딘스키』, 김보라 역, 마로니에북스, 2007
- Otto G. Octivirk, 『미술의 언어』, 곽재은, 황진영 역, 서울: 아트나우, 2004
- W.칸딘스키,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권영필 역, 열화당, 1979

학위논문

- 김미화, 「여백의 미와 선(禪)사상의 관계성 연구」, 원광대 석사논문, 2016
- 남부원, 「문인화의 주요 조형요소에 관한 연구」, 호남대 석사논문, 2017
- 임유선, 「회화 작품을 통해 본 자연의 서정적 표현 연구」, 전북대 석사논문, 2007
- 우상희, 「색면의 조형성과 정신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2011
- 홍성혜, 「감성으로서의 자연이미지 연구」, 성신여대 석사논문, 2002

ABSTRACT

A Study on the Emotional Expression by Natural Phenomenon

- Focused on the Researcher's Own works -

**NAM, Yu Ri
Dept, of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paper is a theoretical study of the works of the master's degree exhibition at <DAILY MOOD> in 2019 based on graduate work from 2017-2019.

In this paper, my work starts with a question about the hidden meaning between people, what we see and feel in nature, and the act of drawing it on the canvas.

In the past, it was significant for art to show the society of that era, but now it is considered more important for modern art to expres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emotions. Also, it is art that has settled individual thoughts as visual output through the media. This is a good visual representation of individual thoughts. In this way, my works are influenced by abstract art to express inner emotions in abstract form.

The concept of abstract art is to present the essence of the inner self as

a tool to express human emotion. And it is to show the nature of existence thorough visual media. Thus, the act of expressing emotions is conveyed in various ways such as music, dance, theater, as well as art. The aforementioned methods are the emotional domains where mental factors are most easily accessed by realistic media.

I present current affairs and social issues, and the commonality is that the emotions of the artist are expressed in all the works, rather than the purpose of presenting the works for a suggestion. I believe empathy is the most important and intrinsic thing. In Asian ideology, it is closely related to the outlook on the nature of the Orient based on gratitude, and nature and humans are in harmony. In the authentic and pure spirit of human beings, we can see the true and genuine world of art only in nature, that is, in a pure state.

I love the rainy weather, and I've been immersed in many thoughts intertwined with various complex emotions. I was very interested in the image of descending, such as seeing the water drops fall outside the window on a rainy day. As a formative means for expressing my feelings about natural phenomena, I used the stamping technique and dropping technique using whitewash water. This work led me to focus on the sounds of nature, and I felt relaxed in mind. In this way, I proceeded with paintings in which color composition and rhyme elements can be abstractly displayed on the screen based on emotions.

According to the feelings of the heart, I used formative rhythm, balance, and contrast for the intuitive impressions and images that emerge from the within and it described formal features and relevance by applying abstract

shapes and colors on paper.

I thought a lot about how art, which is mainly based on emotional expression, can capture the human spirit in various genres of work and why it is necessary for contemporary art. Furthermore, I hope that viewers can feel it and make it a haven of heart.